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2주차. 6월 항쟁 3강. 인권 인식의 변화





- 1. 6월 항쟁으로 인권 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가?
- 2. 그 인식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?





- 1. 6월 항쟁과 인권 인식의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
- 2. 그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3강 인권 인식의 변화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인권 인식의 변화란?
- 나는 지금까지 6월 항쟁에서의 인권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했는가?



0] 들어가기 전에

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

인권의 의무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함

모든 인권의 바탕은 자유, 평등, 민주주의, 연대 등의 기본 가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함



1] 인권의 일상화



- ▶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,
- ➡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범적·도덕적·법적·제도적 수단

1] 인권의 일상화

☑ 인권과 항쟁은,

민주주의 과정	인권 인식의 확장 계기
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진전, 질적 도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	- 형식적·제도적 차원 중요 - 이런 인식이 사회 구성원이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동함 (인권의 일상화)



1] 인권의 일상화

- ☑ 인권 일상화의 역설
 - ➡ 인권의 근원적 의미를 왜곡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음
 - → 권력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성격을 띨 수 있는 인권담론은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
 - ➡ 본보기 :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접근은 인권의 정략적 접근



-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
- 인권 현실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도출하지 못함
- 인권의 프레임으로 사회 조망



- ☑ 인권 프레임의 지배적 규범과의 경합
 - ➡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결과 초래
 - ⇒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의 표출
 - ➡ 인권은 한편으로 모든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행
 - ➡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해 현재 안락함을 누렸던 이들에게 불편함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



☑ 사회구조의 민주화

- ➡ 일상 영역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면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요인
- → 이런 변화는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개개인의 실질적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동등성을 담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찰케 함
- ➡ 87년 민주항쟁 이전까지 각 개별 인권은 대의를 위해 희생하거나,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음
- ➡ 이러한 암묵적 인식은 사회를 관통하는 개발 의제가 투영된 결과
- → 즉,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 사회의 다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국가의 인식
- ➡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면 개별 인권 역시 진전될 수 있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음



- ☑ 대표적인 본보기가 여성
 - ➡ 사회·경제활동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
 - ➡ 헌신과 희생을 강요당했음
 - ➡ 6월 민주항쟁에서도 여성이 직면한 문제는 미해결, 과제로 넘겨짐
 - ➡ 여성의 권리 쟁취 움직임이나 옹호 인식은 존재
 - ➡ 우선순위에서 민주화에 밀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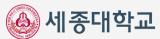
- ☑ 인권의 보편성
 - ➡ 다른 부류의 인권을 부인하게 되면 인권은 무너짐
 - →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진전, 인권상황 개선에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별적 문제 미해결
 - ➡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
 - ➡ 당사자의 삶의 질은 큰 변화 없이 차별적 상황 지속



☑ 인권과 정치

- ➡ 인권은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음
- ➡ 때문에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인권 의제의 관심이 달라질 수 있음
- ➡ 이는 정치적 권리에서 사회적 권리로 확장되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음





- ☑ 진보성의 불균질성 문제(조효제)
 - ➡ 제도적 민주화 이후 각각의 영역에서 이 문제가 나타남
 - ➡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을 토대로 접근해야 함
 - → 과거 민주화에 적극적이고 경제적 권리 보장에도 비교적 긍정적이던 세력이 사회적 의제서 보수화되는 일련의 경향
 - ➡ 정치·경제적으로는 진보적
 - ➡ 젠더, 성적 취향, 정체성, 자기결정권 등 '사적 영역'을 다루는 사회적 의제에서는 보수적
 - ➡ 모순적 현상 존재
 - ➡ 개인 영역의 적극적 보호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조망해야 함



- ☑ 인권의 진보
 - → 민주화를 매개로 개선되고 있음
 - ➡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인권 영역의 확장 촉진
 - ➡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여성, 장애인, 아동·청소년, 성적 소수자 등의 권리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음
 - ➡ 여성의 경우 목소리는 존재, 민주화 목표에 그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우선
 - ➡ 6월 항쟁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림



- ☑ 인권 의제의 다양화
 - ▶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숨겼던 많은 영역의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됨
 - → 6월 항쟁의 결과, 인권의 다양한 영역이 공론화
 - ➡ 가치 지평들이 다원화, 파편화, 교차되는 상황을 다루는 현실로 이행
 - ➡ 인권 역시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인권의 계급화 현상(본보기: 비정규직 문제)

학습정리

- _______6월 항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의식을 내면화하는 인권 의 일상화가 이루어졌다.

참고문헌 및 읽을 거리

- 김재민. 2017. "6월 민주항쟁과 인권."「경제와사회」114: 52-78.
- 정상호. 2007. "시민(citizen)과 시민권(citizenship)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항쟁."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」 2007: 79-98.